

조선/기계 Daily

2020. 12. 7 (월)

조선/기계

Analyst 김현

02-6454-4861

hyun.kim@meritz.co.kr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SIN: 신조선가 지수 125p, 중고선가 지수 89p

Clarksons에 따르면, 신조선가 지수는 125p, 중고선가 지수는 89p로 전주와 동일함. 지난 주 대우조선해양이 ADNOC로부터 VLCC 3+3척을 수주했고 인도기한은 2023년까지로 알려짐. 삼성중공업은 17.4만CBM급 LNG선 1+3척을 수주(2023년 인도)했고, Unisea Shipping으로부터 15.6만DWT급 탱커 옵션분 1척을 확정계약(2022년 인도)했음. 현대미포조선은 Evalend Shipping로부터 4만CBM급 LPG선 2척을 수주했고 인도기한은 2022년까지로 알려짐. (Clarksons)

대우조선해양, 탱커 4척 수주 전망

대우조선해양이 곧 아프라막스 탱커 4+4척을 수주할 전망이라고 보도됨. 이미 VLCC 3+3척을 발주한 Adnoc(아부다비 국영석유회사)로부터 건조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고 알려짐. 참고로 대우조선해양은 올해 말까지 Hapag-Lloyd와 울트라라지 컨테이너선 6척의 건조 계약을 체결할 전망이라고 알려짐. (선박뉴스)

내년 VLGC 시황 호조

4분기 VLGC spot 운임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됨. 선대의 비효율성, 파나마 운하와 인도 및 중국 항만의 체선 현상 등 물류 상의 문제가 운임을 상승 시키는 원인이 되었다고 보도됨. 약 70척이 드라이도킹에 들어가고 약 21척의 노후선이 해체장으로 갈 전망이라고 보도됨. (선박뉴스)

동성화인텍, ABS와 수소탱크 공동 개발

동성화인텍이 미국선급(ABS)과 수소연료탱크 관련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한다고 보도됨. 2021년 2월까지 기본승인(AIP)을 받을 계획이라고 보도됨. 동성화인텍은 탱크설계/해석, 열전달 해석 등을 수행하며 ABS 선급은 설계, 해석 기술에 대해 검토, 승인을 맡게 된다고 보도됨. (선박뉴스)

Adnoc's giant sour gas project set for further delays

Adnoc(Abu Dhabi National Oil Company)의 수십억달러규모 Hail & Ghasha offshore sour gas 개발 프로젝트가 추가 지연됐다고 보도됨. 관계자에 따르면 Adnoc는 프로젝트의 비용절감에 대한 고민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며 4개의 핵심 EPC공사에 대한 가격입찰 기한을 연장했다고 보도됨. (Upstream)

한진중공업, Keppel로부터 355억 손해배상 청구소송 당해

한진중공업이 해양플랜트 용접 결합과 관련해 싱가포르 조선사 Keppel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고 보도됨. 청구금액은 355억 1,698만원으로 올해 3분기 말 자기 자본 대비 8.53%에 해당한다고 알려짐. 이번 소송은 2013년 1월 Keppel과 하도급 계약을 맺은 반 잠수식 수용시설의 하부구조물(Hull)에 대한 용접 결합과 관련된 소송이라고 보도됨. (선박뉴스)